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도시공간교통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
(063-280-7153)

▪ 담당실장 : 연구실장 김보국 연구위원
(063-280-7161)

보도시점: 2016년 11월 04일(금) 12시부터

전북연구원-중국강소성사회과학원 공동

제13회 한·중국제학술대회 개최

‘한·중 현대화 비교와 전북-강소성 협력방안’ 논의
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중국 강소성사회과학원(원장 왕칭우(王庆五))과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전주영화호텔에서 ‘한·중 현대화 비교와 전북-강소성 협력방안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.
-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0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3년째 맞는 전북연구원과 강소성사회과학원의 정기 학술교류로 양 연구원간 교류를 증진하고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공동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.
- 1부에서는 강소성사회과학원 판허핑(樊和平) 부원장의 “샤오캉(중산층 시대) 진입과 중국의 문제’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‘전라북도 강소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’과 리닝(李宁) 강소성사회과학원 철학문화연구소 부연구원의 ‘한·중 문화산업정책 비교연구’ 등 양국 학자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.
- 2부에서는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위원의 ‘전북-강소성 농기계산업 협력방안’ 그리고 강소성사회과학원 장차오(张超) 경제연구소 부소장의 ‘강소성개발구 현대화 전환 발전의 현황과 방법’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

진다.

- 발표 후에는 최백렬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장의 주재로 김영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, 신금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박사, 김진석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장세길 부연구위원, 한하이랑(韓海浪) 강소성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참석해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한다.
- 이 자리에 참석한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“한중FTA 체결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”이며, 특히 “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이 중요하며 강소성사회과학원과 전북연구원간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- 전북연구원 강현직 원장은 “새만금한중협력단지 구성에 따라 한중간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”고 전망하고, “양기관간 연구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연구기반을 마련하자”고 말했다.
- 또한 강소성사회과학원 판허핑 부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“깊은 우애와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양 국가의 미래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”고 강조했다.